



'08년 7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재료산업과 김민 과장, 주원석 사무관(02-2110-5647)

## '12년까지 원자재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

### - 산업용원자재 안정화 대책 발표 -

- ◆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조절기능 활성화
- ◆ 기업의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
- ◆ 정부 비축 및 민간 비축기능 확대
  - \* 비축규모 : ('08) 12종, 19일분 → ('12) 22종, 60일
- ◆ 체계적 자원관리 및 자원 순환 기반 구축
  - \* 회유금속 10개 전문생산기업 육성
- ◆ 자원개발기업 육성 및 해외개발 투자 지원 강화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이윤호)는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공급이 빠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공급제약이 주요 원인으로, 향후 장기적 수급불안에 대비하고자 「산업용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

- \* 상승기간이 2~3년에 불과하던 원자재 가격은 '03년 이후 지속 급등세
- \* 산업용원자재 수입액 : ('07) 650억불 → ('08) 850억불 전망
- \* 가격급등속 공급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어, 자원부족 장기화 전망

○ 관련 수급업체와 함께 원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, 전반적으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나, 현재 수급 애로품목인 고철, 후판, 철근 중 철근을 제외하고는 수급 애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□ 품목별 수급애로 요인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

○ (고철) 수입 대부분이 Spot으로 거래되어 시장 변동에 취약, 세계적인 전기로 건설 급증에 따라, 물량 확보가 갈수록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됨

- \* 고철 자급율 : ('07) 77% → ('12) 70%

- (철근) 국내물량의 90%가 자급되나, 건설 성수기 수요집중 및 원료인 고철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가수요가 발생하여 수급 애로가 발생
  - 수급애로는 철근 생산업체의 설비합리화 및 신규투자로 '10년 완전 해소 전망
- (후판)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요의 60%만 자급하고 있으나, 조선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국내 후판 수급 애로가 심화
  - '10년 이후에는 국내 신증설로 수급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
    - \* 후판 자급율 : ('07) 62% → ('08) 57% → ('09) 54% → ('10) 61% → ('12) 85%
    - \* 신증설 현황(가동시기) : 포스코 200만톤('10), 동국제강 150만톤('10), 현대제철 150만톤('11년)

□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선적으로 품목별로 공급계약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수급 안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음

□ 현재 공급부족 품목에 대하여

- (고철) 제강사 10개社 공동출자로 거점별 비축기지 조성 및 고철 공급 확대를 위해 고철 가공처리 업체를 육성
- (철근) 매점매석 및 불법유통상 단속을 통해 시장 가수요를 적극 억제하고 비축을 통해 성수기 물량 대응하되, 중장기적으로 고장력 철근 사용 확대 등 소비 효율성의 향상을 추진
- (후판) 수출물량 감축, 대체원자재(열연강판) 공급 확대 및 공동 구매를 통해 국내 부족분을 충당하고, 현재 진행중인 설비 신증설의 조기 완공 및 안정화를 유도

□ 구조적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

① 기업들의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하여

-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정책자금 및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

- \* 중소기업청 원자재 정책자금 : 1,750억원 지원, 하반기 1,200억원 추가 조성
- \* 수출입은행 '08년도 원자재 수입자금 6,000억원 조성, 소진시 추가 조성
- \* 신용보증기금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상품(5,000억원) 출시, 기업별 5억원 한도 대출 보증

-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헷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을 실시

- \* 구리, 알루미늄, 니켈 대상으로 시범 실시(5월말~), 향후 품목수 확대 추진

- 구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일분에 불과한 정부 비축규모도 '12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는 한편,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민관 공동 원자재 비축제도도 검토하기로 하였음

## ②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산업의존을 탈피하고, 자원순환형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

- 주요 원자재의 물질흐름도(Material Flow Map)를 완성하여 국내 폐자원의 흐름-부존량을 파악하여, 중장기 원자재 수급대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

- 철근을 대상으로 생산-수요기업간 원자재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, 원자재에 대한 가수요를 막고,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

- 국내 재활용산업의 전문화, 대형화를 위해 기존 재활용업체의 육성 지원 방안 및 대기업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, 입지 확보 등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

- 국내 생산기반이 전무한 차세대 소재용 희유금속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, 고갈 가능성이 큰 소재에 대해서는 대체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음

## ③ 자원개발기업 육성 및 해외광물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

- 광진공의 해외자원 개발역량을 확충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

- 민간기업들의 해외광물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, **자원개발 종합보험 도입 및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을 확대**하겠음
  - \*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관련 대출금, 보증채무, Project financing 등 분야별로 보험제도 운영 → 자원개발 전단계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종합보험 출시 계획('08년말)
- 마다가스카르, 페루 등 광물부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,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**우리기업들의 광물개발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**하겠음
- **업종별 자원수급 위원회 설치**를 통해 개별기업 위주의 자원개발에서 업계 공동의 자원개발을 추진,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기로 함